

발달 청년 일자리 늘리고 직장 적응 돕는다

-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,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‘희망별숲’ 방문

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1일(화) 15시 경기 용인시 ‘희망별숲(주)’를 방문해 발달장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. 이곳은 삼성전자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, 3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문화생활 등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.

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한다. 정부는 청년(15~29세) 장애인 68%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를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.

올해부터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주에게는 시설투자비 외 상품개발비, 마케팅비 등도 지원한다. 지주회사, 의료법인의 설립 제한 규제도 조속히 개선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오래,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 및 직장 적응도 돕는다. 임금수준,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우대 지원하는 한편, 발달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사회성 훈련이 중요하므로 직장 기초소양 훈련을 확대한다. 건강관리 등 복지프로그램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.

김문수 장관은 “대기업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장 확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”하면서 “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[참고 1] 현장 방문 개요

[참고 2] 장애 인구 특징 및 고용 현황

[참고 3]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방안

담당 부서	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	책임자	과 장	박수연 (044-202-7481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남덕렬 (044-202-7482) 박재성 (044-202-7489)

참고 1

현장 방문 개요

□ **일시:** '25.2.11.(화) 15:00~16:30

□ **장소:** (주)희망별숲 (경기 용인 기흥구 서천로201번길 14 2층)

* 삼성전자가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

전체 근로자 347명 중 장애인 315명(전원 발달장애), 쿠키 생산 및 팝업북 제작

□ **주요 참석자**

○ (고용노동부) 장관, 통합고용정책국장

○ (장애인고용공단) 이사장, 기업서비스국장

○ (표준사업장) (주)희망별숲 대표, 장애인근로자 및 부모

○ (모회사) 삼성전자(주) 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,
피플팀장 부사장, TM그룹장 부사장

□ **세부 일정**

※ 행사 전체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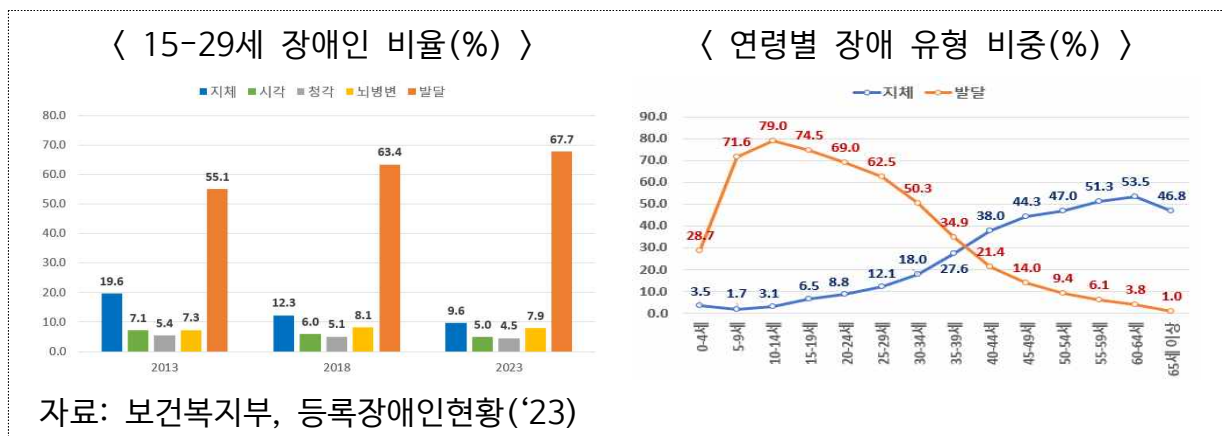
시 간		주 요 내 용	비 고
15:00~15:15	15'	■ 차담회(희망별숲 소개 등)	라운지 (2층)
15:15~15:30	15'	■ 작업장(제과라인) 탐방	작업장 (2층)
15:30~15:45	15'	■ 현장 체험(팝업북 제작)	
15:45~15:50	5'	■ 기념촬영	휴게실 (2층)
15:50~16:30	40'	■ 현장 간담회	

참고 2

장애 인구 특징 및 고용 현황

□ 장애인구 현황

- (총괄) 등록장애인(복지부) 약 264만 명, 전체 인구의 약 5.1%
* (유형별 비중) 지체장애 43.7%, 청각 16.4%, 발달 10.3%, 시각 9.4% 등
- (장애 유형) 지체·시각장애 비중 감소, 발달장애는 증가
특히, 청년(15~29세)층 발달장애 비중은 약 70%**
* 지체·시각(%): ('20) 55.4 → ('21) 54.6 → ('22) 53.8 → ('23) 53.1
발달장애(%): ('20) 9.4 → ('21) 9.6 → ('22) 9.9 → ('23) 10.3
** 청년(15~29세) 발달장애 비중(%):('13)55.1 → ('18)63.4 → ('23)67.7



□ 고용 현황

- '24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고용률 33.8%, 실업률 5.1%
(전체 임금근로자 고용률 63.5%, 실업률 3.0%)
- 지체장애인(42.3%) 및 시각장애인(41.8%) 고용률은 높으나, 발달장애인(29.1%) 고용률은 낮음
 - 발달장애인은 지적기능이나 사회적응 능력, 상호작용 등에 제한이 있어 고용에 어려움
 -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개발, 채용 및 고용유지 지원 필요

□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요

- (인증요건) ①장애인 10명 이상 고용, ②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(장애인 30%, 중증 15%), ③최저임금 이상 지급, ④장애인 편의시설 구비
- (유형) ▲ 일반형 ▲ 자회사형: 모기업이 출자하여 자회사로 설립
▲ 컨소시엄형: 지자체·공공기관이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해 설립
- (지원내용) 시설설치비 등 비용지원, 공공기관 우선구매(총구매액 0.8% 이상), 세제 혜택 등
- (현황) 총 797개 (일반형 626개, 자회사형 170개, 컨소시엄형 1개)
 - 전체 근로자 31,094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18,115명(58.3%),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은 14,474명(79.9%), 발달 10,516명(58.1%)

□ 표준사업장 지원방안

[1] 대기업 등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

- 업종별·유형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, 고용저조 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컨설팅 확대 (기업의 고용여건 분석 및 직무개발·훈련·취업알선 제공)
-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지주회사 공동출자,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추진 (장애인고용법 개정 要)
- 표준사업장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설투자비 외 상품개발비, 홍보·마케팅비, 기자재 구입비 등 추가 지원
 - * (現) 표준사업장 준비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주 → (改) 전체 사업주로 확대
 - ** (대상)창업 후 3년 내, (요건)지원 후 3년 내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, (한도)5천만원

[2] 표준사업장 근로조건 및 복지 개선

-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, 임금 수준,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대상 선정 시 우대
- 발달장애 근로자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해 직무 및 직장 체험형 기초소양(동료 간 의사소통, 직장에절 등) **훈련** 신설
 - * ('25년) 수도권 3개 발달훈련센터 시범 운영 → 단계적 확대
 -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주 재직자 **훈련과정** 신설 추진
- 사업장 내 발달장애 근로자 대상 건강관리, 여가·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방안 검토

[3] 지원제도 효율화

- 지원금 한도(10억) 소진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5억원 추가 지원
 - 추가 지원에 따라 신규 채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, 월 소정 근로시간 요건(80시간) 충족 필요
- 지원금 '3천만원' 당 장애인 1명 신규 채용 요건을 '4천만원'으로 완화
- 시설투자(작업시설, 장애인 편의시설, 기숙사·휴게실 등 부대시설), **출퇴근 승합차** 등에 국한하여 지원하던 지원금 항목 확대
 -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**인증취득 및 컨설팅 비용** 추가